

크리스마스, 새해 인사

사이타마 교구민 여러분,

성탄과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자비의 특별성년’은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폐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비롭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자비의 특별히년 선포칙서[자비의 얼굴]9항)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비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에 더해 하느님께서서는, 매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실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30)

저는 교구관리자로서 4번째의 성탄과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라와 교구 시절에 주교였던 9년간(1991년~2000년)의 기억과 함께 하며 의미깊은 나날을 보내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이해와 뒷받침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타마 교구의 신자 전원에게 의한 복음선교·복음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해야 하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자신의 말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자비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가, 보다 평화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세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17년이 참된 하느님의 자비의 도구로서 사는 한 해가 되도록,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의 이끄심, 도움을 기도합니다.

2016년 성탄을 맞이하여
사이타마 교구관리자
대주교 베드로 오카다 타케오